

해남형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에 활력 불어 넣는다

군비 투입 맞춤형 정책...자영업 체감형 성과 도출

특례보증·점포경영 개선사업·배달수수료 등 인기

꾸준히 확대해 온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18종,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상 사업 중 14종, 23억원은 해남군이 자체 발굴한 사업으로, 군비를 투입

해 시행해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를 한층 높이고 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해남군 특례보증 3종 지원사업'이다. 담보가 없는 저신용의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대출이자·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인 최대 3000만원까지였던 대출규모를 올해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증수수료는 최대 30만원, 대출이자 4.8% 고정금리로 그중 3%를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129개 업체에게 총 50억원 대출을 실행하고, 보증수수료는 5000만원이며, 이자 보전 349개소에 총 2억3200원을 지원했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도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높다.

노후 간판, 도배, 장판, 안전 시설장비 등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92개소에 3억4000만원을 지원하

며 사업이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신규창업 인차료 지원사업은 생애 첫 창업한 소상공인 10명을 선정해 월 최대 25만원씩 1년간 최대 300만원의 인차료를 지원해 신규 창업자들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배달수수료 지원,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총 1500개소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대형 배달업체의 광고비 등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특별 할인쿠폰을 추가 발행하기도 했다.

먹깨비 배달앱은 올해에만 주문건수가 115%, 전년대비 가맹점수 37% (471개소, 누적회원수 23%가 증가하면서 가맹점 471개소, 회원수 4408명까지 늘어났다.

발행 7년만에 누적판매 8000억원을 달성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15%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남군은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은 타 시·군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군비를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총출하고 실질적인 힘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목포, 내년 국고예산·특교세 확보 총력

조석훈 권한대행 중앙부처 방문...현안사업 지원 요청

목포시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과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창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목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는 목포 노후역사 개량,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 국제 마린길 거래스 등급제 운영장비 지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 5건의 주요 국고사업을 증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예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을 직접 만나 국비 증액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평화광장 공영주차타워 조성,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 국제축구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창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목포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신안군은 최근 안좌면 우목항과 지도읍 점암선착장에서 첫 위판을 진행. 약 300망 (36t)의 곱창김 (잇바디돌김)이 위판됐다.

신안, 2026년산 첫 햇김 위판·본격 생산

생산량 증가 전망...“김 산업 육성 지원 확대”

신안군은 최근 2026년산 첫 '햇김' 위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김 생산에 들어갔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 우목항과 지도읍 점암선착장에서 이뤄진 첫 위판에서 약 300망 (36t)의 곱창김 (잇바디돌김)이 위판됐으며, 하의면 신도 해역에서 채취한 김이 최고가 60만원 (120kg)을 기록했다.

'곱창김'은 맛과 향이 만능종인 일반 들

김에 비해 좋고 품미가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최근 해외에서도 K-Culture, K-Food의 인기로 힘입어 수출량이 증가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말 수온이 평년보다 낮았다가 10월부터 평년보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초기 성장률이 저하했으나 11월부터 기온 하락으로 인한 해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서 해양 여건이 안정화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광활한 청정갯벌에서 지주항목을 세워 민물과 썰물을 이용해 김밭을 햇빛에 자동 노출하는 옛 전통방식의 지주식 김을 생산하고 있다.

또 지주식 물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 총 생산량의 65% 정도가 해남과 서천, 부안 등 전국으로 유통·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프리미엄 김으로 평가받고 있고 주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강진군-주한베트남대사 면담

컨터지할시와 협력의 장 확대

강진군은 최근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해 부호 주한베트남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실질적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강진군문화관광과장 김기태 대표이사 등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주한베트남대사관 측에서는 부호 대사, 응우옌 딘 등 참사관 등 관계자 4명이 자리했다.

2013년 강진군은 베트남 서남부 지역 하우장성 퐁현과 국제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10여년 이상 교류 관계를 지속하며 민간협력 자원봉사, 의료지원, 계절근로 사업, 유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7월 베트남 정부조직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호도시인 퐁현이 폐지되고, 상급 행정기관인 하우장성도 컨터지할시로 편입됐다.

이에 강진군은 양 지방정부의 우호 관계와 교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강진군수와 주한베트남대사의 면담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번 면담에서 강진원 군수는 현재 베트남과 추진 중인 교류사업과 강진군 내 베트남 인구 유입 확산에 따른 교류 확대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으며, 주한베트남대사는 양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 컨터지할시와 조속히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빚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펙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
압도적 에너지 효율
(당사 정격 시험 조건)

최대 58°C
고온 난방,
폭한도 거뜰하게

4 사이클
독립 운전,
멈춤 없는 냉난방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안정

온라인 견적 문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를 www.carri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